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 都 日 報

joongdo.co.kr

| | | | | | |
|-------|--|------|----------|-----|---|
| COI란? | COI는 IETF(국제기구)에 URN NID로 등록된 UCI의 국가 단위 표준 식별체계 표기법입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 | | | |
| COI | G700:RA106+01400351-01400351:20090921:01400351.2009092110002570976:1 | 제호 | 13285 | | |
| RA기관 | 언론재단 | 서비스명 | 뉴스인증 서비스 | 면번호 | 2 |

“대전문화재단 이사회 재구성해야”

지역 문화예술계 “정당성·명분 확보가 우선” 한목소리

[대전=중도일보] <속보>=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문화재단의 이사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계 곳곳에서는 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나타난 일방적인 ‘관 주도’와 타 지역 문화재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사회 구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사회의 정당성과 명분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인천, 대구, 부산 등 타 지역 문화재단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화재단의 이사는 10여 명 선으로, 정관이 정한 이사 수가 30명에 이르고 순수 이사만 26명을 선임한 대전문화재단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문화재단 관계자들은 대전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 대부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반적인 재단법인의 이사 수가 15명 안팎인 것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지나치게 이사 수가 많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 예술단체 관계자는 “민간의 의견도 제대로 지 않은 문화재단의 이사진을 필요 이상으로 거대하게 구성한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명분이 없는 거대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방향을 혼란에 빠뜨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예술계 인사는 “문화재단이 출범부터 힘을 받지 못하면 향후 5년 내에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만큼 시는 지금이라도 민의를 수렴해 명분 있는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지역보다 이사 수가 많은 것은 적은 자산으로 출범하는 만큼 각계 인사들을 참여시켜 향후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하

면서 `이사회 재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14일 창립총회를 가진 대전문화재단은 이달 중으로 법인설립 허가와 등기 등 설립절차를 밟은 뒤 내달까지 직원채용 등 조직구성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강순욱 기자 ksw@

| | | | | | |
|---------|---|--------|------------|--------|------|
| 기여자 | 강순욱 기자 | 제작일 | 2009-09-21 | 등록자 | 중도일보 |
| 저작권자 역할 | 언론사 | 기여자 ID | romero777 | 컨텐츠 유형 | TEXT |
| 저작권 정책? | 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어문 저작물 로써 사전동의나 허락 또는 계약 없이 딥링크 방식이나, 프레임 방식 등 무단 게재를 허용치 않습니다.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뉴스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인 한국언론재단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dnc.kpf.or.kr/d1.htm) 연락처 : (02) 2001-7859 | | | | |